

2013. 3. 7.
말씀: 김삼환 목사

너는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의 믿음

(히 11:6-12)

오직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의 목자이시며, 나의 요새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합니다.

히 11:33-34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1. 믿음은 자신의 약점, 열등감, 단점, 문제점을 모두 극복하고 이기게 하며, 그 약점으로 더 큰일을 할 수 있는 교량이 되고, 사다리다리가 되고, 디딤돌이 되고, 베이스캠프가 되게 합니다.

고후 12:9-10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같이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켈란젤로, 루터, 파스칼, 모차르트, 베토벤, 쇼펜하우어, 뉴턴, 에디슨, 아인슈타인, 링컨, 워싱턴, 루즈벨트 등도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조금 잘난 것 때문에, 조금 더 가진 부, 조금 더 배운 지식, 조금 더 높은 힘, 조금 더 좋은 배경 때문에 교만하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하나님과 교회를 멀리하고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 믿음은 주변의 모든 고난, 위기, 환난, 시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환경이 좋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히스기야,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룻, 에스더, 모르드개 등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수많은 위기와 고난과 환난을 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빌 2:12-13).

사람 속에 있는 야웨에 대한 믿음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힘을 다 이겼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그 큰 힘으로도 지팡이만 잡고 있는 모세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히 11:24-26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최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폴리앗도 사울도 다윗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앗수르도 히스기야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보이는 힘, 물질과 지식과 권력과 군사 등 세상의 힘을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 힘을 가졌을 때는 영적 힘으로, 믿음으로 관리하십시오.

시 127:1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은 그리스를 점령하기 위해 70만 군대를 이끌고 원정을 나섰습니다. 지나가는 도시마다 우물이 다 말랐다고 합니다. 이 힘, 이 큰 군대, 이 큰 무기를 누가 당하겠습니까?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러나 군대의 숫자를 자랑하던 페르시아는 훗날 다리오 3세 때 알렉산더의 4만 군대에 패하고 말았습니다.

애굽은 나일 강을 믿고 그 힘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고, 바벨론도 군대의 힘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였습니다. 앗수르, 페르시아, 헬라, 로마, 에돔 등도 모두 다 한 가지 때문에 망하였습니다. 영적인 힘, 믿음의 힘, 사람 속에 간직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힘을 무시함으로 멸망한 것입니다.

욥 1:3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알렉산더는 힘만 믿다가 패한 페르시아 왕을 보고도 그 역시 세상의 힘을 믿고 세계를 정복했으나 33세에 죽었으며, 그 나라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단 5:22-23 벨사살이며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재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환을 주장하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폴 틸리히(Paul Tillich)는 현대인에게 모든 것이 풍성해도 세 가지 회색 그림자(공허감, 죄책감, 공포감)가 따라다니는다고 했습니다. 맥스웰 멀츠(Maxwell Maltz)는 현대인의 95%가 열등감이라는 질병에 걸려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 시민의 70%는 매일매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믿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인도양의 모리셔스 섬에 살던 도도새는 천적이 없는 천국 같은 조건에 그대로 눌러앉아 몸무게 25kg, 부리는 23cm, 날개가 짧아져서 날지도 못한 채 식용으로 사용되다가 17세기 말에 멸종되었다고 합니다.

• 오늘의 모든 어려운 환경은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 모든 축복과 성공은 고난의 보자기를 풀어야 하고, 풍랑의 강을 건너야 하고, 절망의 산을 넘어야 합니다.

현대인은 피터팬 콤플렉스에 빠져 있습니다. 어른인데도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책임감도 없고, 불안하고, 현실 도피형입니다. 사는 것이 무서워 결혼도 못하고, 아이를 기를 자신이 없어 아이도 낳지 않고, 직장생활과 사업에도 자신이 없어서 부모에게 기대어 살아갑니다.

큰 물고기는 얕은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큰 배는 얕은 강으로 가지 않습니다. 믿음의 대장부가 됩시다. 믿음의 대장부가 진정한 대장부입니다. 유대인이 모든 지식과 물질을 가지고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은 믿음이 갖는 신비한 비밀입니다.

좋은 자동차, 경주용 자동차는 스피드도 뛰어나지만 제동장치도 뛰어납니다. 믿음은 고난과 환난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도 뛰어나지만 죄의 길, 멸망의 길, 방탕한 세속문화도 브레이크로 ‘딱딱’ 잘 잡습니다.

시 1:1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 믿음의 대장부는 기도의 대장부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모든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배우시다. 다윗 하면 생각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시 55:17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시 88:13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시 116:2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 믿음의 대장부는 성전을 사랑해야 합니다.

성전은 대장부를 만드는 대장간이요, 대장부가 되는 학교요, 모든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성전 사랑은 뛰어났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법궐을 먼저 옮긴 것은 그의 생각과 꿈과 소망이 무엇인지, 왕의 우선 정치 1호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의 중심은 성전에 있었습니다.

시 27:4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요세푸스는 다윗 시대에 찬양대가 20만 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예배를 드리면서 세계를 다스리는, 세계를 섬기는, 세계를 품는, 세계를 거느리는, 세계가 존경하는 대장부가 되었습니다.

세계사를 보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있습니다. 헤브라이즘은 히브리인의 유일하신 야웨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신앙으로 주변 강대국의 끊임없는 침략과 파괴와 억압에도 패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세계 속에 우뚝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추구하는 나라들이 세계의 선두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미국은 1620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던 102명의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미국 개척 초기에는 모든 가정이 하루도 빠짐없이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미국에 처음 세워진 107개 대학교의 설립 취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육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설립 후 100년 동안 목회자만이 교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컬럼비아, 필립스 아카데미 등 수많은 명문학교들은 모두 성경에 기초를 두고 세운 학교입니다.

진정한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영적인 힘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때 믿음의 대장부가 됩니다.